강서교회, 창립 50주년 희년기념예배 '샬롬1025' 개최

'은혜의 50년, 다시 복음으로' …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교회 다짐



서울서지방회 강서교회(손항모 목사)가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기념예배 '샬롬1025'를 개최하고, 지난 50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선교의 미래를 향한 사명을 다짐했다.

강서교회는 조원집 원로목사가 1976년 7월 18일 방주교회로 창립해 1978년 강서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와 전도, 국내외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국내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해외 선교지 교회 건축을 추진하는 등 교회 안팎에서 섬김과 선교 활동을 펼쳐 왔다. 2012년 2월 26일에는 조원집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와 함께 손항모 목사가 담임목사로 위임돼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이끌어 왔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해는 지난 7월 19일 희년을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11일까지 전교인 성경필사를 실시했으며, 2027년 상반기 봉헌에 맞춰 해외에 희년기념교회를 건축 중에 있다. 또한, 10월 4일에는 다음세대들이 섬기는 예배를, 11일(주일)에는 희년 찬양예배를, 18일(주일)에는 강서교회 출신 박종현 목사를 초청해 희년 1일 부흥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담임 손항모 목사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 목사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강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예배는 교회가 걸어온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 2부 '샬롬1025' 순서는 이재환 안수집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이주용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강서교회의 50년 역사는 지역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온 여정이자, 국내외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 온 발자취다. 교회는 희년을 맞아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세대 신앙 계승과 선교 사역을 통해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교회는 '예배로 들어가 선교로 나아가는 강서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은혜의 50년, 다시 복음으로'라는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강서교회 제공)

이호교회, 원로목사 은퇴 및 담임목사 위임식 거행

정현숙 원로목사 42년 성역 마무리… 한혁수 목사 제7대 담임 위임



제주전도지방회 이호교회가 지난 10월 30일(금) 정현숙 원로목사 은퇴식과 한혁수 목사 담임위임식을 거행했다.

1부는 은퇴 및 위임 감사예배로 지방회 부회장 안진 목사(신양교회)가 여호수아 1장 1~9절을 본문으로 '성공적 삶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정현숙 원로목사의 성역 42년을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역을 이어 위임받는 한혁수 담임목사를 통해 이루실 복음전도의 긴 여정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여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였다.

1부 축사를 맡은 제주복음전도의 동역자 김광식 원로목사(충신교회)는 "예성 여교역자 회장(3회), (재)예성유지재단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 성낙원 이사장(현)'에 이르는 제주도 복음화 및 여성목회자와 교단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정현숙 원로목사의 사역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주님 뵈옵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임"을 축복하였다. 또한, 여목회자회 회장 양재은 목사는 교단의 여성목회자 양성을 위해 헌신한 정현숙 원로목사의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2부는 안진 목사(지방회부회장)의 집례로 한혁수 담임목사 위임식으로 거행되었으며, 서울중부지방회 주님앞에제일교회에서 27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한 한혁수 목사의 위임을 축하하는 노윤식 목사의 축사와 노태철 원로목사의 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1971년 1월 7일, 제1대 송진욱 목사에 의해 창립되어 55주년을 맞이한 이호교회는 제주도에서 복음전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며, 제6대 정현숙 원로목사에 이어 제7대 담임목사로 한혁수 목사가 위임받게 됐다. 특별히, 노윤식 목사는 축사에서 한혁수 목사가 기도 중 환상에서 한 노인의 청함과 이호교회 명을 보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호교회로 청빙 받게 된 계기를 나누며 축복하였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바울의 환상 속 마케도냐 사람이 청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한 사도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처럼, 정현숙 원로목사와 이호교회 온 성도들이 수년간 교회를 지키며 후임목사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 의해 역사 된 것이다.

정현숙 원로목사의 은퇴식과 한혁수 담임목사 위임식을 위해 제주전도지방회 소속 모든 교회와 이호교회 성도들, 주님앞에제일교회 노윤식 목사, 노태철 원로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여목회자회장 양재은 목사 외 복음전도사역의 동역자들로 예배당이 가득 채워졌으며 이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교회를 가득히 채우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전도지방회주재기자 박성봉 목사

충서지방회, 옥천 · 청주 일대서 야외기도회 개최

15개 교회 19명 참석… 예배와 친교로 영성 다져



충서지방회(회장 손기선 목사)가 지난 10월 13일(화) 지방회 소속 15개 교회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옥천 천상의 정원과 청주 청남대 일원에서 야외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천상의 정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10월 교직자 기도회로 시작됐다. 김명수 목사(금마중앙교회)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종섭 목사(두곡교회)의 기도에 이어 고영준 목사(홍성중앙교회)의 '서로 사랑할지니'의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을 나누었다.

예배 후 천상의 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솜씨를 찬양했다. 이어 청남대로 이동해 대통령 별장의 역사적 현장을 살펴보고, 국가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야외기도회는 각 감찰회의 풍성한 간식 섬김과 금마중앙교회, 삽교교회의 식사 섬김, 그리고 지방회장의 차 대접이 어우러져 더욱 훈훈하고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야외기도회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된 지방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쁨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서지방회주재기자 황중만 목사

서울북지방회, 아름다운 동행으로 목회의 새 힘 얻어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목회력 증진대회 개최



서울북지방회(회장 진영복 목사)는 10월 20일(화) 강원도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목회력 증진대회를 개최했다. 각 교회의 원로목사 부부를 비롯한 지방회 소속 목회자와 사모 등 36명은 감찰회별로 이동해 소금산 입구에 집결한 뒤, 흰돌교회 이봉준 원로목사의 기도로 일정을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뒤 건강과 체력에 따라 코스를 나누어 탐방했다. 대부분은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등 주요 코스를 걸으며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는 소금산의 절경을 감상하고 산악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하산했다. 일부 원로목사 부부와 장거리 보행이 어려운 참석자들은 하늘정원까지 여유롭게 산책한 뒤 케이블카로 내려왔다.

특히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마련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탐방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서로의 보폭을 배려한 덕분에 체력이 연약한 참석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자연을 즐기며 교제할 수 있었다.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를 건너는 동안에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다.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는 산세는 바쁜 목회 현장에서 잠시 벗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과 쉼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탐방 후에는 점심 식사와 차를 나누며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원로목사들과 각 교회를 섬기는 담임목사들은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세대를 잇는 동역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일정은 지방회장 진영복 목사(초장교회)의 인사와 개동교회 윤종관 원로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이번 목회력 증진대회는 회원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재충전하고 친목을 다지며 목회의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자리였다.

서울북지방회주재기자 서계원 목사

부천지방회, 목회자 부부 가을 나들이

군산에서 영육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 가져



부천지방회(회장 박병두 목사)는 지난 10월 19일(월)~20일(화)까지 전라북도 군산에서 목회자 부부 가을 나들이를 통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3개 감찰회별로 출발하여 새만금방조제를 건너 군산 선유도에 도착한 후 먼저 유람선으로 주변 여러 섬을 일주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광하였고 군산 맛집에서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나눈 후 호텔로 이동하였다. 저녁에는 감찰회별로 볼링대회를 하여 한마음감찰회가 1등으로 상금 15만 원, 행복한감찰회가 2등으로 상금 10만 원, 더좋은감찰회가 3등으로 상금 5만 원을 받으며 모두가 행복해했다. 다음 날은 군산항의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수많은 건축물과 당시 거리의 살아 있는 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옛 군산세관인 호남관세박물관, 구 일본제18은행군산지점인 근대미술관, 구 조선은행군산지점인 근대건축관, 군산 3.1운동100주년 기념관 등을 관람하면서 잠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어 군산의 명물 짬뽕 거리 전통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누고 역시 군산의 명물인 이성당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여 교회별로 선물 받은 후 감찰회별로 귀가하였는데 모든 비용은 지방회에서 부담하였으며 모두가 부척 행복해하는 가을 나들이로서 지방회에서 연례적으로 해 오는 영육이 쉼을 얻는 행사이다.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

서울동지방회, 원로목사회 부부 힐링캠프

"무릉에 피어나는 사랑, 믿음의 동행"



서울동지방회 원로목사회(회장 노희석 목사)는 지난 10월 29일~30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무릉건강숲>에서 "무릉에서 피어나는 사랑, 믿음의 동행"이란 주제로 '26년 원로목사 부부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서울동지방회 원로목사회는 2024년부터 매년 가을에 원로목사부부 힐링캠프를 실시하는데 올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부부가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뜰)에서 육체적 건강과 영적 평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무릉건강숲>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원로목사 부부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꽃피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며 원로목사 부부들이 자연 속에서 영적인 재충전과 온전한 쉼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지방회와 원로목사들이 소속한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해제일교회 이흥재 원로목사와 이영은 담임목사의 사랑의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서울동지방회주재기자 김남수 목사

원고 모집 / 광고 문의 ☎ 070-7132-0091

서산지방회 목회자 부부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

순교의 현장 탐방하며 섬김의 마음가짐 새롭게 하는 시간이돼



서산지방회(회장 이강우 목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목회자부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다.

일본은 1549년 스페인 출신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 Xavier)에 의해 동남아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로 일부 영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선교에 협력하여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일본 각지로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신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며 기독교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1597년 나가사키에서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자 20명을 포함한 26성인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고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는 전국적인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당시 신자들은 후미에(踏み絵) 라는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침을 뱉게 하는 방식으로 색출하여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배교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회유에도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음을 보았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히라도섬까지 숨어들어 약 250년 동안 사제도 없이 제대로 된 성경도 없이 단지 과거 기억에 의존한 세례와 기도, 신앙 전통을 이어 나갔던 잠복기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 숨은 기독교인) 가정과 마을 공동체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번 순교지 탐방을 진행하기 전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바탕으로한 영화 사일런스(Silence)를 함께 관람하고 당시 기독교 박해에 대한 역사배경을 이해하며 기도로 준비하였다.

당시 순교의 중심지였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니시자카공원에 위치한 26성인 기념관, 오무라에 위치한 스즈타 감옥터, 호쿠바루처형장, 처자이별바위, 몸통부덤, 머리부덤, 운젠지옥, 히라도의 아이자 화형장, 하비엘 기념교회, 마츠라사료박물관 등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순교의 현장들을 탐방하면서 깊은 마음의 감동과 주를 섬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탐방일정을 마치며 지금도 북녘의 어느 하늘 아래에서 숨죽여 신앙을 지키며 속히 자유롭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또 다른 잠복기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서산지방회주재기자 이근희 목사